

광주·전남 데이트 폭력 1년새 2배 늘었다

지난해 528건...폭행·상해 각각 110·80%↑·성폭력 증가세 경찰 TF 구성 대응 강화...흉기 사용시 경찰서장이 수사 지휘

A(38)씨는 최근 광주시 남구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는 애인 B(여·36)씨를 위협해 다시 차에 태운 뒤 두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하고 협박했다. 자신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의 행동에 격분한 A씨는 폭행은 물론 살해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C(64)씨도 지난 2월 초 연인이던 D(여·45)가 자신을 피하는 등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구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폭행했다. C씨는 며칠 뒤 서구 화정동 모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귀가하던 D씨를 뒤쫓아가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앞으로 데이트 폭력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는 데이

트 폭력에 대해선 경찰서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등 악성 강력 범죄에 준하는 대응 시스템을 동원할 방침이다. 경찰이 수차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오히려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에서 지난 2016년 256건이었던 데이트 폭력사건이 2017년에는 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폭행 상해는 190건에서 399건으로 110%, 체포·감금·협박은 29건에서 47건으로 62% 늘었다. 올해도 4월 현재 17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8건을 넘어선 상태다.

전남도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62건

으로 74.1%가 증가했으며, 이 중 폭행·상해는 54건에서 97건으로 79.6%, 체포·감금·협박은 19건에서 25건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2016년 단 1건에 그쳤던 성폭력이 지난해 14건으로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침을 받아 "내달 15일까지 데이트폭력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8월 24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두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데이트폭력 TF(태스크포스)가 관련 부서 역량을 결집해 현장 출동부터 피해자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처리 전반에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피해 정도가 큰 데이트폭력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관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적극 수사 지휘하

도록 했다.

피의자의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신고 이력과 재발 우려를 고려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맞 대응한 경우 정당방위 적용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 맞춤형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여경이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는 '대(對)여성 악성범죄 2차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각 경찰관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성폭력 수사 끝날때 까지 무고 수사 늦춘다

대검 수사매뉴얼 개정...역고소·맞고소 무력화 2차 피해 방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광주지검 등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3월 11일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대책위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었다.

대검은 이 밖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가해자 부모,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

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과태료 부과나 교육 시수·절차 등을 규정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컸다.

개정안은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담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죄송합니다” 1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달름	02:50
해질	19:39	달짐	14:46

자외선 강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 많음	19/29	보성	구름 많음	17/26
목포	구름 많음	19/25	순천	구름 많음	18/27
여수	구름 많음	18/25	영광	구름 많음	18/26
나주	구름 많음	18/29	진도	구름 많음	17/25
완도	구름 많음	18/26	전주	구름 많음	18/28
구례	구름 많음	17/28	군산	구름 많음	17/25
강진	구름 많음	18/27	남원	구름 많음	17/28
해남	구름 많음	18/27	홍산도	구름 많음	15/21
창성	구름 많음	17/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	남동~남	0.5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남동~남	0.5~1.0
	앞바다	북동~동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0.5~1.5	북동~동	0.5~1.5
	남부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19	02:06
	19:22	14:06
여수	02:50	08:49
	14:46	21:26

◇주간 날씨

30(수)	31(목)	6/1(금)	2(토)	3(일)	4(월)	5(화)
☀	☀	☀	☀	☀	☀	☀
19/27	18/28	16/30	16/30	17/31	17/31	18/29

◇생활지수

- 주요: 식중독, 자외선
- 매우 높음: 미세먼지
- 보통: 미세먼지

‘넥센’ 조상우 “성폭행 인정 못 해”

경찰 출석 혐의 부인...박동원은 목목부답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가 28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 중 조상우는 취재진에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프로야구 선수 박동원과 조상우를 소환했다.

두 선수는 이날 오전 9시 50~55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청사 앞에서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경찰에 출석한 박동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계속 이어진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도 같은 대답만 수차례 반복했다.

이어 5분 뒤 모습을 보인 조상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며 “성폭행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를 성실히 하고 정확하게 받아서 사실을 밝히겠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야

구팬들에게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이날 출석했다.

프로야구 넥센 소속 1군 주전 선수인 박동원과 조상우는 이날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날 오전 5시 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여성의 친구는 경찰에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두 선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의 친구는 두 선수와 평소 아는 사이였으며 피해 여성은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텔 내부 폐쇄회로(CC)TV도 분석하고 있다.

또 피해자 신체와 호텔 방에서 증거물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장기 임대주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